

안전은 '근성' 과 '끈기' 로 완성된다

(주)화승인더스트리 나창식 차장



1969년 한국 최초의 Chemical Shoes 공장을 설립한 (주)화승인더스트리. 그로부터 20여년 후인 1990년 화승은 또 한 번의 도전을 시작했다. BOPP 필름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 업계는 무모한 도전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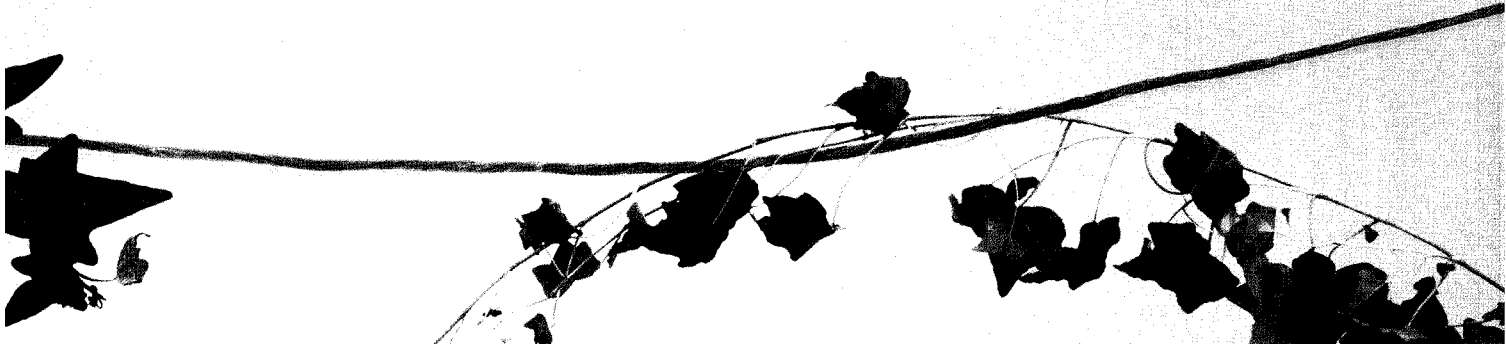
하지만 (주)화승인더스트리는 그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보란 듯이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1993년 국내 최초로 통기성 필름사업을 시작한 이래 1995년 신규라인 확장, 1997년 BOPET 필름사업 진출 등 거침없는 성장을 이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국내 최고의 종합필름기업으로 우뚝 올라섰다.

이같은 (주)화승인더스트리의 성공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이곳의 경영방침에서 찾을 수 있다. 이곳은 다양한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가운데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우수안전기업, 친환경기업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기업 스스로가 근로자들의 안전 그리고 지역의 환경을 우선시하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이다.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주)화승인더스트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는 이곳의 안전관리자 나창식 차장을 만나봤다.

취재 · 사진 | 연습기 기자(skyway@safety.or.kr)





끊임없는 노력이 베테랑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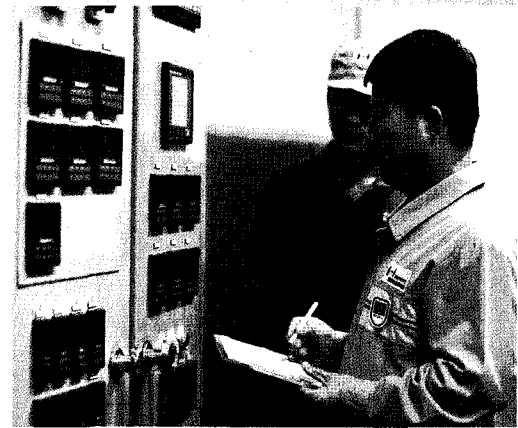
나차식 차장이 안전에 몸을 담게 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경기 평택에 있는 신평제지에 재직 중이었다. 원래는 회사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 입사를 했으나, 공장장이 안전 관련 자격증을 지니고 있는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안전관리 업무를 맡겼다. 전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사회 초년생이자 신입 사원인 그에게 맡긴 것이었다. 실로 파격적인 조치였다.

막중한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현장에 가서 주요 기계·기구의 작동법과 위험포인트를 익히고, 밤에는 집에서 안전관리이론을 익혔다. 또 익힌 기술과 이론은 즉각적으로 현장에 적용시켜나갔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자 초짜 안전인은 사업장은 물론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베테랑 안전인으로 거듭났다.

작업현장은 눈에 익었고, 근로자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업무에 불편함이 없었다. 그저 평탄한 회사생활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택했다. 또 다른 환경에서 자신의 안전관리역량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1996년 종합필름업체로의 발돋움을 막 시작하던 (주)화승인더스트리로 적을 옮겼다.

맞춤형 안전관리 ‘눈길’

(주)화승인더스트리의 공정은 원료, 압출, 연신(중연신기, 황연신기), 권취, 절단, 포장, 출하 순으로 이루어진다. 공정 특성상 크레인, 롤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은 물론 화학물질취급작업 등이 많아 협착, 질식, 화재 등 다양한 재해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나 차장은 이들 위험에 대비코자 위험장소에는 현수막, 위험표지판 등을 모두 설치, 근로자들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작업에 임하도록 했다. 또 그는 공정 내 롤러 등 회전체가 많은 것을 감안, 이들 장비의 맞물림점에는 협착방지 안전바 등을 설치하여 사고의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했다. 아울러 그는 사내 제안제도 등을 통해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 안전관리

나 차장은 ‘선택’과 ‘집중’의 안전관리로도 유명하다. 시기·계절별로 최대 위험요소를 선정, 그에 대한 예방활동에 대·내외 모든 안전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그 핵심사항. 매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는 ‘하절기 안전사고예방활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나 차장은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대대적인 안전활동을 시작한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먼저 그는 ‘안전사고예방 강조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또 크레인 및 승강기 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그는 이 시기에 시행하는 모든 작업은 사소한 것이라도 작업계획서를 작성, 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때 그는 밀폐공간작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한다. 작업대상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보호구까지 세밀히 챙겨준다. 이를 위해 고가의 산소농축정기, 전동식 공기호흡기까지 구비해 놓았을 정도다.

“나의 안전엔 끝이 없다”

나 차장의 향후 목표는 KOSHA 18001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사내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지금도 지역에서 손꼽히는 안전활동을 하고 있지만, 업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기업답게 안전에서도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근로자들과 형제처럼 소통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화승인더스트리의 모든 임직원들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늘 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 차장은 끊임없는 노력만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같은 그의 끈기와 근성을 더욱 많은 안전인들이 배운다면, 안전 선진국 대한민국의 실현이 더욱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